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서의
수동태 분석



2011 년 8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한 아 람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서의
수동태 분석

지도교수 박 순 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8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한 아 람

한아람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 월 26 일



주심 문 학 박사 박 양 근 (인)

부심 영 어 학 박사 John Stonham (인)

부심 영 어 학 박사 박 순 혁 (인)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2.1 수동태의 정의와 종류	5
2.1.1. 수동태의 정의	5
2.1.2 수동태의 형태	8
2.2 선행 연구	10
III. 연구방법	14
3.1 분석 기준과 요소	14
3.2 코퍼스 분석 방법	16
3.3 교과서 분석 방법	17
IV. 연구내용	19
4.1 코퍼스 분석 내용	19

4.1.1 수동태 문장의 비율	19
4.1.2 수동태의 주어	20
4.1.2.1 주어의 표면적 특징	21
4.1.2.2 주어의 속성 - 유생성	23
4.1.3 문법적 상에 따른 분류	26
4.1.4 수동문의 동사	27
4.1.5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의 거리	29
4.2 교과서 분석 내용	31
4.2.1 수동태 문장의 비율	31
4.2.2 수동태의 주어	31
4.2.2.1 주어의 표면적 특징	31
4.2.2.2 주어의 속성 - 유생성	36
4.2.3 문법적 상에 따른 분류	38
4.2.4 수동문의 동사	39
4.2.5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의 거리	40
4.2.6 수동문의 유형	42
4.3 교과서와 코퍼스의 비교 분석	45
4.4 토론	47

V. 결론	52
-------------	----

참고문헌	55
------------	----

An Analysis of Passives in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Textbooks

Aram Ha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which is named 2007 revised curriculum, focuses on communicative competence or fluency. Thus, English classes more and more focus on communicative competence without considering some important or high frequency English grammar items such as passive. In fact, a lot of English learners in Korea avoid using passive form because of its difficulty and form which is different from Korean passive form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 i) to analyze frequency of passive sentences in the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text books,
- ii)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ssive in textbooks,
- iii)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sort of corpus, and
- iv) to compare the passives in textbooks with other kinds of corpu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the necessity, purpos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about passive. The third part presents analysis criterion and how to analyze the text books and corpus. The fourth part deals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corpus and textbooks and presents discussion about results. The last fifth part summarizes the study and come to conclusion and some suggestion for

teaching passive in the class.

The main results of analysis of textbooks are as follows: Firstly, thirteen percent of sentences used in the textbook corpus are passive. Secondly, the length of subject is not related to choosing either passive or active. Thirdly, more passive sentences are used when the subject of sentence is animated. Fourth, passive sentences in textbooks are combined with tenses and aspects. Fifth, almost passive sentences are used without their agents, that is, the short passive are a lot more frequently used than passives with agents. Lastly, the subjects of passive sentences are used as the subjects of relative clauses or 'be + past participle' is not immediately followed by insertion conjunctions or apposition clauses.

This study suggests that teaching passive in context is more effective in order to developing both students' fluency and accuracy according to current teaching curriculum. Next, teachers have to teach students that when passive is used and what meaning of passive is so that make students use passive correctly. Finally, teachers use not only a course book but also other authentic materials such as novels or journals which are realistic in usage.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공시된 우리나라 2007 개정 영어 교육 과정을 보면 목표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해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을 얻는 바탕을 마련하고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 목표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전의 교육 목표들과 비교해보면 언어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효과적인 영어 학습과 실제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만큼 영어문법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문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잘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거나 유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영어 문법은 학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잦은 오류를 범하는 요소들이다.

언어의 중요한 기능인 말하고 쓰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다른 구조를 갖는 영어의 문법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문법 교육을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황수진(2009)의 각 교과서별 문법 내용 분석 연구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문법은 조동사, 관계대명사, 현재완료, 수동태, 가정법, 접속사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어에서는 수동형의 문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수동보다는 능동 표현이 대부분이기 되기 때문에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한국 학생들에게 수동태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에 수동태 학습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수동태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동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는 수동문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교과서에 나타나는 수동태 문장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수동태 문장은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과서 수동문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수동문을 바로 이해한다면 영어의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수동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에는 수동태 습득에 있어서의 학습자들의 오류 분석, 동사유형과 수동문에 대한 연구, 수동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어의 유생성과 수동문 선택에 관한 연구 등 수동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과 그리고 교과서 분석을 통한 수동태의 비율, 수동태의 주어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교과서 이외의 영어 텍스트 내에 나타나는 수동태 문장들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교과서의 수동태 분석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본 논문은 성격이 다른 텍스트들을 선정해서 그 텍스트 내에 나타나는 수동태 문장을 비교 해보고 특징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사설, 소설, 저널 세 종류의 영어 코퍼스의 수동문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글의 성격에 따라 수동태 문장이 얼마나 빈번히 사용 되는지, 수동문에 사용된 주어와 동사들에는 어떤 공통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려 한다. 코퍼스를 분석하여 찾아낸 특징들을 토대로 개정 교육과정

에 의해 최근에 집필된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서 3종의 본문 속의 수동태 문장들도 분석하여 교과서 내의 수동문이 실제 원어민들이 작성하고 사용하는 텍스트 내의 수동태 문장이 가지는 특징이나 형식이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서는 본문을 통한 독해 학습 후 작문으로 이어지는 학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본문들은 다양한 주제와 종류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세 종류의 코퍼스와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 영어 학습자들은 실제로 수동태 문장을 능동형 문장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수동문과 능동문을 서로 상응하는 동사적 변화로 여기고 교재들 또한 이런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도 수동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의미적으로 유사할 뿐 형태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용을 회피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실제 접하는 교과서 분석과 다른 영어 텍스트들과의 분석 결과의 비교를 해서 여러 특징을 찾아내고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수동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어와 동사에 따라 쉽게 수동태 문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수동문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들이 문맥에 적절하고 정확한 형태의 수동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이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배경과 본 논문과 관련된 수동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 제시한다. 3장에서는 코퍼스와 교과서 본문의 분석 기주와 연구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4장에서는 코퍼스와 교과서 분석 연구에 대한 내용과 비교 분석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

을 하고 5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을 제시한다.

1.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분석 대상 코퍼스로 선정된 사설, 저널의 텍스트가 특정기간에 국한된 기사 중의 일부이며 선정된 소설 코퍼스는 방대한 영어 소설 중 두 권을 채택하였는데 한권은 전체 중 일부분만을 다른 한권은 짧은 길이의 소설이기 때문에 분석한 특징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코퍼스와 교과서 본문의 어휘수가 동일하지 않고, 추출한 용례의 값도 백분율과 빈도로 단순 비교한 제한점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2.1 수동태의 정의와 종류

2.1.1 수동태의 정의

영어문장에는 두 가지의 태(voice)가 존재하는데, 주어와 술어동사의 능동·수동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을 태(voice)라고 한다. 능동태는 주어+타동사+목적어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삼고 동사는 be+과거분사의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수동태에서 능동태의 주어는 by+명사구를 만든다. 즉, 수동태의 구조는 주어+be동사+과거분사+by+행위자의 구조로 나타난다.

- (1) a. Bill opened the window. -능동태
b. The window was opened by Bill. -수동태

위의 두 문장은 의미가 비슷하고 동일한 상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1a)는 Bill이 주어인 동시에 행위자로서 Bill에 관심이 집중되고 이 주어 Bill이 어떤 동작을 했는지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1b)는 주어는 the window이지만 행위자는 Bill로서 주어인 the window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비슷한 의미라도 수동문 또는 능동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의미를 능동, 수동의 두 형식 모두 나타낼 수 있을 때에는, 앞서 제시한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능동태가 기준이 된다 (Greenbaum & Quirk 1990). 예를 들어 We enjoyed the music을 수동태로 바꾼 The music was enjoyed by us는 어색하게 들린다.

어떤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로 전환시킬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능동문장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의미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만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것이다.

- (2) a. Tom was born in Toronto.
- b. ?His mother bore Tom in Toronto.

동작동사인 bear는 사람의 출생을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수동형으로만 표현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표현에는 be deemed, be fined, be hospitalized, be jailed, be scheduled, be shipped, be staffed, be suspended 등이 있다.

수동문은 시제(tense)와 상(aspect)의 결합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 (3) a. Our professor was fired by the dean.
- b. Our professor is being fired by the dean.

- c. Our professor was being fired by the dean.
- d. Our professor has been fired by the dean.
- e. Our professor had been fired by the dean.
- f. Our professor should be fired by the dean.
- g. Our professor will be fired by the dean.

(3a)는 수동태의 기본 구조인 be동사+ 과거분사 형식이며, (3b)는 현재 진행 수동, (3c)는 과거 진행 수동, (3d)는 현재 완료 수동, (3e)는 과거 완료 수동, (3f)와 (3g)는 조동사와 결합한 수동문의 형식이다.

수동문의 과거분사와 분사형 형용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두 가지 모두 'be 동사 + 과거분사(-ed)'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The window were broken.

Willis (1994)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위 문장의 broken은 형용사형 분사 또는 수동문의 과거분사로 설명될 수 있다.

- (5) a. The house was a mess. The paintwork was peeling and the windows were broken.
- b. The window were broken by the force of the explosion.

(5a)의 broken은 형용사형 분사로 사용되었고, (5b)의 broken은 수동문의 과거분사로 사용되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과거분사가 상태를 나타내거나 어떤 서술적인 역할을 할 경우 분사형 형용사로, (5b)와같이 활동적

이거나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수동문의 과거분사로 구분한다.

2.2.2 수동태의 형태

Biber et al. (1999)는 행위자 유무에 대해 수동문의 상대적 길이에 따라 행위자가 있는 수동은 긴 수동문(long passive), 행위자가 없는 수동은 짧은 수동문(short passive)라고 제시하고 있다.

「by+ 행위자」가 생략된 짧은 수동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첫째, 행위자(능동태의 주어)가 불분명하거나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 (6) a. He was killed in World War II.
- b. The Korea Bank was robbed yesterday.

둘째,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밝히지 않아도 분명할 때

- (7) a. English is spoken in Australia.
- b. Arnold was elected President.

셋째, 행위자를 드러내지 않으려 할 때

- (8) a. This topic will be discussed later.
- b. My letter has not been answered yet.

넷째, 행위자 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수동주어를 강조하고자 할 때

- (9) a. The bed was not slept in.
b. The house was struck by a motor car.

다섯째, 문체형의 배려로, 앞에 나온 주어를 그대로 이어 받을 때 짧은 수동문을 사용한다.

- (10) a. He spoke and was applauded by the audience.
b. All through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was laughing and impressed by the amazing martial arts moves.

수동태는 '주어+be동사+과거분사+by+행위자'의 구조로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by+행위자를 수반하는 구문보다는 by+행위자가 명시되지 않은 구문이 적어도 4:1 비율로 많다 (문용 2010).

「by+행위자」가 생략되지 않은 긴 수동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첫째, 행위자를 꼭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긴 수동문을 사용한다.

- (11) a. He was brought up by his grandmother.
b. On his death he was succeeded by his second son.

둘째, 중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때 긴 수동문을 사용한다.

(12) In the U.S Open, Tom beat Bill, but he was later was beaten by a young man from Korea.

위 문장은 정보 가치와 수동태 사용 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에는 어순상 구정보(old information)가 상대적으로 문장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신정보(new information)에 속하는 요소는 뒷자리를 차지하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Tom은 이미 언급된 구정보로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었고 by 이하의 행위자인 a young man from Korea가 신정보로서 문장의 끝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셋째, 행위자가 유명인일 때도 「by+ 행위자」가 생략되지 않은 긴 수동문을 사용한다.

(13) This bed was slept in by George Washington, our first president.

2.2 선행 연구

수동태와 관련한 여러 주제의 선행연구들이 많이 행해져 왔다.

수동태의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인 김가원(2007)의 「영어 수동태 허용동사와 제한동사에 대한 오류분석」이라는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수동태로 전환할 때 허용동사와 관련해서는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지만, 제한동

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오류를 범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전환하는 단순한 기계적인 연습으로 인하여 수동문이 불가능한 동사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의미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동태의 습득에 관련한 연구에는 현한나(2008)의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수동태 습득 양상을 의미, 형태, 활용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가 있다. 학생들은 수동태의 의미영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어에도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다고 제시했으며, 다음으로 활용영역, 형태영역의 순서로 나타났다. 형태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원인은 한국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나 형태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며 활용 영역에서는 수동태가 언제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지를 알고 맥락에 맞게 써야 하는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Lee, Kwee-Ock & Lee, Youngjoo (2007)는 한국의 어린이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어린이들 보다 모국어 수동태의 습득 연령이 이르다는 측면에서 어떤 요소적 제약이 수동태 습득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연구를 통하여 수동태 습득이 단순히 통사적 구조의 제약이 아니라 의미적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어휘적 상이 한국어 수동 습득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이 완성 동사/술어의 수동문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코퍼스 분석과 수동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곽혜선(2006)의 연구가 있다. 곽혜선(2006)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수동태 사용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에서 BNC 코퍼스와 교과서 그리고 대학생 영

어 학습자들의 영작문을 토대로 수동태의 전체 빈도수, 글의 종류별 수동태의 특성 그리고 수동태 사용에 있어서의 동사의 수 제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코퍼스와 교과서는 수동태의 빈도수가 비슷했지만 학생들이 영작문에서의 사용 빈도는 현저히 낮다고 하였다. 글의 종류별 수동태의 특성에서는 격식적인 글에서 수동태의 쓰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수동태에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한된 동사의 수로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어로 사용되는 명사의 유생성이 수동문과 능동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몇몇 연구결과가 있다. Clark(1965)는 행위자와 행위를 받는 사람의 유생성의 정도에 따라 수동문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유생성이 있는 명사가 동작을 받을 때 수동태로 표현되고 유생성이 있는 명사가 문법적으로 주어의 위치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유진(2007)은 무생물 주어와 생물 주어 각각에 대하여 능동태나 수동태를 선택하는 경향을 실험을 통하여 무생물 주어의 경우 비문법적인 수동태의 형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생물 주어를 선택하는 경우 보다 훨씬 높다고 하였다. 문장의 주어가 무생물이라는 것이 과 수동화의 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어에서 무생물 주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 동사들에 대하여 수동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여 문장 내 다른 성분들에 의존하지 않고 주어, 동사의 관계만으로 문장 태의 형식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Montag & MacDonald(2009)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만들 때 핵명사의 유생성에 따라 관계대명사절에서 능동문과 수동문의 선호도를 알 수 있다. 핵명사의 유생성은 관계사절의 문법구조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학습자들은 핵명사가 유생성이 있을 때 90%이상 수동 관계사절을 선

택했으며, 핵명사가 유생성이 없을 때에 학습자들은 60%비율로 수동 관계 절 구조를 선택했다.

수동태의 선택이 동사 유형과 유생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Ferreira(1994)의 연구는 theme-experiencer 동사들은 화자들이 수동문을 선호하며 이러한 동사들이 보통의 동사들에 비해 수동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화자들은 유생성이 있는 개체들을 주어 자리에 두는 것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어떤 동사가 수동문에 많이 사용되며, 수동문의 주어로 유생성이 있는 주어와 유생성이 없는 주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분석 기준과 요소

코퍼스와 교과서 본문의 수동문들을 몇 가지의 기준을 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코퍼스는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텍스트를 선정해 각 종류별 코퍼스에 수동태 문장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문장에 대한 수동태 문장의 분포 비율을 알아보고 몇 가지 분류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 코퍼스와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동태 문장의 주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표면적 특징과 속성으로 나누고 표면적 특징은 다시 주어의 길이, 주어로 사용된 명사나 명사구의 구조에 특징을 찾았다. 주어의 속성인 유생성 유무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어의 유생성 유무와 관련해 나타나는 특징도 찾아보았으며, 수동문의 주어 선택이 유생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코퍼스와 교과서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동사의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에 따른 분석을, 동사의 의미적 상(lexical aspect)에 따른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 사이의 거리를 분석하였다.

수동태의 주어로 사용되는 명사 또는 명사구의 표면적 특징을 찾아보았

다. 최유진(2007)의 연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주어가 무생물일 때는 능동문이나 수동문 선택에 있어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주어가 생물일 경우에는 거의 능동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주어가 무생물일 경우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수동문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주어와 동사 간의 의미적 연결로 수동과 능동 선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동태의 주어로 사용된 명사 또는 명사구의 표면적 특징과 유생성 유무에 따른 수동태의 주어의 특징을 찾아보려고 한다. 특히 주어의 유생성과 관련해서는 주어의 유생성 유무가 수동문을 결정하는 기능적인 요인의 하나로 여겨져 많은 선행연구가 행해져 왔다. 유생성의 위계와 관련해 유생성이 문장의 주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 유생성이 있는 행위자는 의도성, 통제력, 책임감, 의식성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로 더 선택되기 쉽다 (Davidson 1971). 그리고 생물, 특히 인간을 나타내는 명사의 개념이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의 개념보다 더 빠르고 쉽게 어휘화되어 주어로 선택되기 쉽다(Bock 1982). 이와 같은 결과가 교과서 본문에도 적절히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

'be동사+ 과거분사'가 어떤 형태의 수동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사의 문법적 상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영어의 어휘적 상(lexical aspect)의 따른 분석은 어떤 유형의 동사가 각 코퍼스와 교과서 본문에 빈번히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거리는 주어가 받는 수식과 관련지을 수 있는데 이 거리는 수동문의 주어와 [be+ 과거분사] 사이의 가깝거나 먼 정도를 의미하며 이

거리는 주어의 어떤 형식으로 수식을 받거나 부가 설명이 되는지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3.2 코퍼스 분석 방법

분석 대상 코퍼스는 난이도와 글의 성격에 따라 3가지 종류의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텍스트들은 사실, 소설, 저널로 분류되는 책자와 기사들이다. 이 세 종류의 코퍼스는 사실, 저널, 소설 순으로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사실의 텍스트는 뉴욕 타임즈의 홈페이지에 2011년 2월 21일부터 2011년 3월 10일까지 게재된 Editorial Section의 기사 36개를 선정하였으며, 영어 소설은 Charles Dickens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part4와 part5 부분과 그림 형제의 라푼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영어 저널은 Readers Digest Asia의 홈페이지의 2011년 2월호, 3월호 기사를 선정하였다.

세 종류의 코퍼스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종류에 속하는 영어 텍스트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 중 수동태 문장만을 가려냈다. 이 가려낸 수동태 문장들을 네 가지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였다.

먼저 주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어의 특징을 길이, 인칭, 품사로 나누어 찾아보았다. 주어의 길이는 주어에 사용된 단어의 개수로 결정하였으며 수동태의 주어로는 몇 인칭이 많이 사용되고 그 주어에 사용된

어휘의 품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주어의 속성적 특징으로 유생성의 유무와 관련한 수동문의 특징도 찾아보았다. 두 번째로 영어의 문법적 상(aspects)과 관련하여 문법적 상 측면에서 어떤 형식의 수동태가 각 코스에 나타나고 어떤 형식이 수동태가 자주 사용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수동문에 사용된 동사에 대해서는 그 빈도수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동태 문장들을 다시 유생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수동태 문장들이 유생성 유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수동태 문장의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의 거리를 살펴보고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3.3 교과서 분석 방법

교과서 본문 내의 수동태 문장에 대한 분석은 교과서 각 단원의 본문 파트의 지문들만 선택하여 그 중 수동태 문장만을 가려냈다. 본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이찬승 외 7인 2010. 능률교육- 이하 Book 1),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권오량 외 5인 2010. 금성출판사 - 이하 Book 2),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김규현 외 6인 2010. 두산동아 - 이하 Book 3)

<표1>

분석 대상 교과서

교과서		비고
능률교육 2010	이찬승 외 7인	Book 1
금성출판사 2010	권오량 외 5인	Book 2
두산동아2010	김규현 외 6인	Book 3

3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기준은 앞장에서 제시한 각 코퍼스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의 분류방식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을 토대로 몇 가지 기준을 더 하였다.

먼저 주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어의 특징을 길이, 인칭, 품사로 나누어 찾아보았다. 주어의 길이는 주어로 사용된 단어의 개수로 결정하였으며 수동태의 주어로는 몇 인칭이 많이 사용되고 그 주어로 사용된 어휘의 품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주어의 속성적 특징으로 유생성의 유무와 관련한 수동문의 특징도 찾아보았다. 두 번째로 영어의 두 가지 상(aspect)과 관련하여 문법적 상 측면에서 어떤 형식의 수동태가 각 코퍼스에 나타나고 어떤 형식이 수동태가 자주 사용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어휘적 상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 보았다. 이것은 수동태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사용된 동사의 빈도수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동태 문장들을 다시 유생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수동태 문장들이 유생성 유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수동태 문장의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의 거리를 살펴보고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알아 보았다. 이와 함께 교과서 본문 분석에서는 행위자를 포함하는 유무에 따른 수동태의 유형에 대한 기준을 더하였고 그리고 수동태 형식으로만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지도 찾아보았다.

IV. 연구 내용

4.1 코퍼스 분석 내용

분류기준에 따라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수동태 문장의 비율

세 종류의 코퍼스에서 전체 문장들 중 수동태 문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았다.

뉴욕 타임즈에서 추출한 사설 코퍼스는 총 710개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동태 문장은 121개로 전체에 대하여 17%로 나타났다. 백분율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소설 코퍼스는 총 56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수동태 문장은 44개로 비율은 8%로 나타났다. 백분율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저널 코퍼스는 64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수동태 문장은 82개로 전체 13%로 나타났다. 백분율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표2>

각 코퍼스의 수동문 비율

	코퍼스		
	사설	소설	저널
수동태 문장 수 (개)	121	44	82
총문장 수 (개)	710	564	646
비율 (%)	17%	8%	13%

난이도가 어려운 사설이 다른 종류의 코퍼스에 비해 수동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고 소설에서는 세 종류의 코퍼스 중 수동태 문장이 적게 나타났다. 저널에는 수동태 문장이 사설보다는 적지만 소설보다는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수동태 문장이 비율의 차이는 그 텍스트의 문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사설은 매우 형식적(formal)인 스타일의 글이며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소설은 상당한 양의 구어 형식의 대화체를 많이 포함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격식체의 글 뿐만 아니라 비격식적(informal)인 내용의 기사도 포함하는 저널은 사설과 소설의 중간적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사설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나지만 소설에 비해서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4.1.2 수동태의 주어

주어의 표면적 특징과 속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어의 표면적 특

징으로는 주어의 길이와 주어 명사구의 구조로 구분하였으며 주어의 속성은 유생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유생어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보았다.

4.1.2.1 주어의 표면적 특징

수동문에 사용된 주어의 길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동태 문장에 사용된 주어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1~2개일 때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주어가 많았다. 영어에는 길고 복잡한 주어 명사구를 문장의 끝에 두는 문미 중점(end-weight)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세 종류의 코퍼스 내의 수동태 문장에도 상대적으로 긴 주어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3> 코퍼스 수동문의 주어 길이

주어의 길이	사설	소설	저널
0개	0	0	0
1개	39	26	40
2개	34	11	18
3개	23	2	10
4개	10	1	2
5개	9	1	6
6개	3	1	4
7개	2	0	1
8개	1	1	1
...
16개	0	1	0

위의 표를 보면 긴 주어가 사용된 문장이 소설 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의 주어는 (12)에서 볼 수 있듯이 16개의 단어로 구성되

어 있지만 문장의 머리가 아닌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였다.

(14) Upon the floor within, were piled up heaps of rusty keys, nails, chains, hinges, files, scales, weights, and refuse iron of all kinds.

주어 명사구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세 종류의 코퍼스에 나타나는 주어 명사구는 인칭대명사와 부정대명사를 포함한 대명사 또는 인칭대명사(구), 그리고 보통명사(구)로 구분하였다. 이들 수동문의 주어 명사구는 [관사(+형용사)+ 명사], [명사+ 전치사구], [형용사+ 명사], [명사+ 명사]와 같은 다양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영어 문장의 주어의 형식과 같기 때문에 특징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수동문에도 한 단어의 주어보다는 구형식의 주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설은 주어로 인칭대명사나 부정대명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가 27 문장이었고 13개의 고유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했으며 나머지는 보통명사(구)가 주어로 사용되었다.

(15) a. Ms. Alliot-Marie was replaced by Alain Juppé, a former prime minister convicted in 2004 of mishandling public funds.

b. In one-quarter of the cases involving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abuse, the workers were transferred to other homes.

소설은 대명사 주어가 단독으로 주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 21개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보통 명사구가 수동문의 주어로 사용되었다.

(16)a. You were born to make your fortune,” said Joe, “and you’ll certainly do it.

b. Her account was stated on the wall in the same manner.

저널의 주어로 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은 25개로 나타났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통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하였다.

(17)a. He could be seen as greedy.

b. Many herbs are said to be useful for inducing sleep.

각 코퍼스의 수동문의 주어의 인칭을 살펴보니 사설, 저널, 소설 모두 3인칭 주어가 1인칭과 2인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1인칭, 2인칭 순이었다. 특히 사설과 소설에서는 2인칭이 수동문의 주어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18)a. They were taken aback by my gesture, and I told them they should take the umbrella and keep it.

b. This story sounds oh so familiar because it’s been played out in very real terms the past two years.

4.1.2.2 주어의 속성 - 유생성

언어에 있어서 유생성(animacy)이란 생명의 존재여부에 따라 생물과 무

생물의 구분을 특징 짓는 역할을 한다. 유생성에는 위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물은 무생물보다 유생성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하여 생물이 무생물보다 어떤 한 문장 내에서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위계가 더 높다. 그리고 유생성은 언어의 격(case), 수(number), 동사의 일치(agreement)와 어순(word order) 등과 같은 다양한 문법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각 코퍼스의 수동태 문장을 주어의 유생성 유무(animate 또는 inanimate)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사설에는 animated 주어 수동문이 34개, 소설에는 animated 주어 수동문이 12개, 그리고 저널에는 animate 주어 수동문이 28개로 나타났다. 반대로 inanimate 주어를 가진 수동문은 사설이 88개, 소설이 19개, 저널이 53개로 나타났다. 3종류의 코퍼스 중 사설과 저널은 유생성이 없는 주어가 사용된 수동태 문장이 훨씬 많지만 소설의 수동문에는 유생성이 있는 주어와 유생성이 없는 주어의 비율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19) a. In the first month, eight babies were delivered at Shalom Paanakan.

b. 852 journalists have been killed since 1992 when the committee began keeping records.

(20) a. Countries may be associated with certain specialities.

b. Her account was stated on the wall in the same manner.

<표4>

주어의 유생성 분류

주어 속성	코퍼스 종류		
	사설	소설	저널
[+ animated]	34 개	21 개	28 개
[- animated]	87 개	23 개	53 개

주어의 유생성 유무에 따라 수동태 문장들은 분류해 보니 주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주어가 유생성을 가질 때([+ animated])에는 인칭대명사나 부정대명사 주어의 수동문의 비율이 주어가 무생([-animated])의 주어를 가질 때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생의 인칭대명사나 부정대명사가 주어로 나타나는 수동문의 비율은 사설 29%, 소설 76%, 저널 48%로 각각 나타났다. 사설에서는 유생의 인칭대명사 또는 부정대명사 주어 수동문이 34개의 유생 주어 수동문 중 10개, 소설에서는 21개 중 16개, 저널에서는 29개 중 14개로 나타났다.

Yamamoto(1999)는 유생성의 위계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사람 > 동물 > 식물 > 무생물 > 추상명사

주어로 선택되는 명사의 유생성의 위계에 따라 수동문이 결정된다.

(21) a. Extremists are determined to topple Pakistan's government, yet they operate with impunity, enabled by the elites.

b. Mr. Taseer's killer was extolled as a hero in rallies

held by conservative religious parties.

(21a)의 경우는 행위자나 피동작주 모두 유생성이 있는 경우이고, (21b)는 주어자리의 피동작주가 행위자 보다 위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4.1.3 문법적 상에 따른 분류

영어는 시제 표현과 함께 상(aspect)이라는 것이 있다. 영어의 상은 문법적 상과 어휘적 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법적 상은 행위의 진행을 표현하는 진행상(progress)과 행위의 완료를 표현하는 완료상(perfect)로 구분된다.

영어의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과 관련하여 어떤 동사의 형태로 수동태 문장이 많이 쓰이는지 알아보았다. 수동태의 기본 구조인 [be동사 + 과거분사]의 형태가 사설에서 69개, 소설에서 37개, 저널에서 50개로 각 코퍼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비교적 비격식체(informal)의 문장으로 쓰여진 저널에서는 get 수동태의 형식도 4개 나타났다. 그리고 사설은 소설과 저널의 수동문들에 비해 [조동사+be동사+과거분사] 구조의 수동문도 25개 나타났다. 이것은 사설의 어조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동사의 형태에 따른 소설 속에 나타나는 수동태 문장의 구조는 조동사나 진행 또는 완료상과 결합한 형태보다는 간단한 기본 구조가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선정된 소설의 가진 간결하고 쉬운 문체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 (22) a. That's because the states would be given money for alternatives equal to the cost of insuring their citizens under health care reform.
- b. That kind of hybrid approach has been used before when other countries joined NATO in military action, ...
- c. At a time when public school students are being forced into ever more crowded classrooms.

<표5>

각 코퍼스의 수동문 유형

수동태 유형	사 설	소 설	저 널
be + p.p	69	37	50
get + p.p	*	*	4
조동사 + be + p.p	25	5	13
only p.p	7	*	5
have/has/had been + p.p	10	1	6
be + being + p.p	6	*	1
to be + p.p	4	*	3
조동사 + have been + p.p	0	1	0

4.1.4 수동문의 동사

코퍼스와 교과서 본문 속의 수동태 문장들의 동사의 유형이나 자주 쓰이

는 동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용된 빈도가 높은 동사들을 분류해서 특징을 찾아보았다.

세 종류의 코퍼스를 결합한 코퍼스의 수동문에는 210여개의 동사가 사용되었다. 사설에 나타나는 동사는 100개, 소설에는 40개, 저널에는 75개의 동사가 나타났다.

이 동사들 중에서 각 코퍼스의 수동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는 다음과 같다. 사설에서는 동사 use가 5회, 동사 kill 4회, 동사 allow 3회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동사 find, provide, release, replace, set up은 2회씩 사용되었다. 소설에서는 동사 point가 3회로 빈도수가 많았고, 동사 receive와 surprise는 각각 2회씩 사용되었다. 저널의 수동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는 make이며 총 5회 사용되었고, 동사 associate, do, organize, release, take는 2회씩 사용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코퍼스를 하나로 합쳐서 동사의 빈도수를 살펴보니 전체 210여개의 동사 중 use가 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take 4회, release 3회, do 3회, suppose가 2회 사용되었다. 한 코퍼스에서만 높은 빈도를 나타낸 동사는 제외시켰다.

소설에는 사용된 동사들 중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도 다수 있다.

- (23) a. At first Rapunzel was terribly frightened when a man
such as her eyes had never yet beheld came to her.
b. Scrooge was at first inclined to be surprised that the

Spirit should attach importance to conversations apparently so trivial.

4.1.5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의 거리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 사이의 거리는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 사이에 위치하는 수식어구의 단어의 개수로 결정되었다. [be동사+ 과거분사]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수동태의 주어가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로 가장 눈에 띄는 구조이다.

- (24) a. It was especially chilling that the killer's defenders included lawyers who are supposedly devoted to the rule of law. (사설)
- b. Secrets that few would like to scrutinise were bred and hidden in mountains of unseemly rags, masses of corrupted fat, and sepulchres of bones. (소설)
- c. When it became lighter, I decided to brave the drizzle to get my car, which was parked at my office three streets away. (저널)

둘째,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 사이에 접속사가 삽입된 유형이 있다.

- (25) a. Recent college graduates, for instance, are still stymied by the job market. (사설)
- b. The Arizona mechanism, by contrast, was designed to reduce both the risk and the appearance of corruption, which makes public financing appealing generally to the court and should make it appealing in these cases. (사설)

셋째, 병렬 구조로 인하여 등위접속사 다음에 [be동사+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 (26) a. But if he had cut the end of his nose off, he would have put a piece of sticking-plaister over it, and been quite satisfied. (소설)
- b. Oprah invited Charice to appear on her show and was floored by Charice's riveting rendition of Whitney Houston's "I Have Nothing".(저널)

넷째, 주어의 부가 설명해주는 구 또는 동격구의 삽입으로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 (27) a. The nation's first woman cabinet member — Labor Secretary Frances Perkins — is buried in her beloved Maine, but her room name won't survive. (사설)
- b. Reform measures — including making the tip-off culture a felony with heavy penalties — have been offered by

4.2 교과서 분석 내용

4.2.1 수동태 문장의 비율

교과서 본문에 나타는 수동태의 분포 비율은 Book 1에서는 11%, Book 2에서는 10%, Book 3에서는 17% 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동태 분포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상대적으로 Book 3에서 수동태 문장의 개수가 다른 두 종의 교과서 보다 다소 많았다.

<표6> 교과서별 수동태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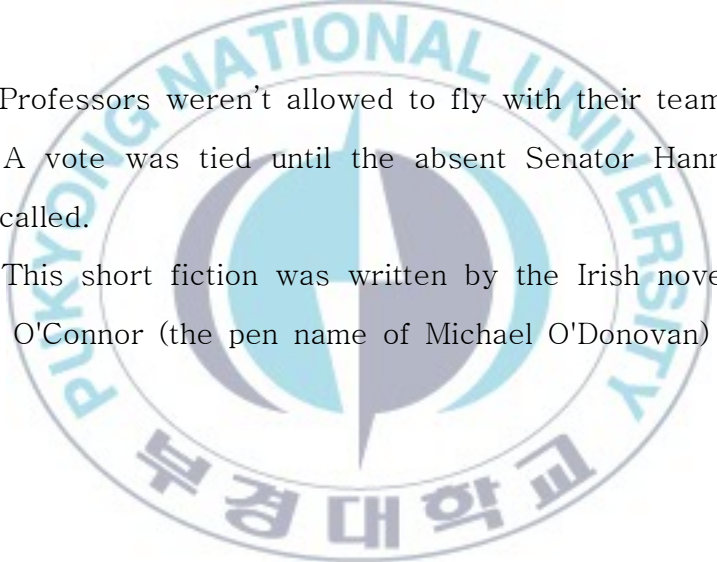
	Book 1	Book 2	Book 3	합계
수동태 문장 수(개)	80	55	114	249
총 문장수(개)	702	516	675	1893
비율(%)	11	11	17	13

4.2.2 수동태의 주어

4.2.2.1 표면적 특징

주어의 길이가 수동태 문장을 선택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수동문장 이외의 능동문장의 주어의 길이와 비교 해보았다. 수동문 이외의 능동형 문장은 의문문과 명령문, 감탄사 등을 제외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들의 주어의 길이이다. 주어의 길이는 주어로 사용된 단어의 개수로 규정한다. 수동태 문장내의 주어의 길이는 분사구문 등의 주어가 생략된 0개부터 최대 11개로 나타났고, 능동태 문장내의 주어의 길이는 주어가 생략된 0개부터 최대 17개로 나타났다. 수동태 문장이든 능동태 문장이든 주어의 길이는 1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뒤로 2개와 3개 길이의 주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 
- (28) a. Professors weren't allowed to fly with their team.
b. A vote was tied until the absent Senator Hannegan was called.
c. This short fiction was written by the Irish novelist Frank O'Connor (the pen name of Michael O'Donovan) in 1949.

<표7>

교과서 수동태 문장의 주어 길이

주어로 사용된 단어수	Book 1	Book 2	Book 3	합계
0개	3	2	5	10
1개	39	22	49	110
2개	17	20	28	65
3개	8	2	17	27
4개	6	3	5	14
5개	1	2	4	7
6개	3	0	3	6
7개	2	1	1	4
8개	0	1	1	2
9개	1	0	0	1
10개	0	0	0	0
11개	0	0	1	1



<표8>

교과서 능동태 문장의 주어 길이

주어로 사용된 단어수	Book 1	Book 2	Book 3	합계
1개	332	240	316	888
2개	76	81	69	226
3개	32	33	31	96
4개	17	17	17	51
5개	8	17	10	35
6개	13	6	12	31
7개	13	13	2	28
8개	5	2	2	9
9개	1	1	2	4
10개	0	1	2	3
11개	0	4	0	4
12개	2	0	1	3
13개	0	0	0	0
14개	0	0	0	0
15개	0	0	0	0
16개	0	0	0	0
17개	1	1	0	2

위 <표7>과 <표8>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주어의 길이는 수동태 문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본문의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는 인칭대명사 또는 부정대명사 단독으로 쓰인 대명사 주어, 인칭대명사(구), 그리고 보통명사(구)가 사용되었다. 명사구는 [관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명사+ 명사]와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보통의 영어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는 형식과 같아서 교과서 본문의 수동문의 주어의 특징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수동문의 주어로 하나의 단어의 주어 형식 만큼 구(phrase)형태의 주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 (29) a. Suddenly the Peak of Teneriffe started shining, while the lower parts were covered with clouds.
- b. The rocks on the coast are crowded with great black lizards which measure between three and four feet long.
- c. Tomato sauce was called Napoletana, which originated from the region of Napoli in Italy.

Book 1에서는 수동문의 주어로 인칭대명사 또는 부정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은 34개 이었고, 2개의 고유명사 주어 문장, 그 밖의 수동문에는 보통명사 또는 보통명사 구가 주어로 사용되었다.

Book 2에는 21개의 대명사 주어, 8개의 고유명사(구) 주어, 25개의 보통명사(구)가 수동문의 주어로 사용되었다.

Book 3에서는 28개의 인칭대명사 또는 유대명사가 수동문의 주어로 사용되었고, 고유명사(구)가 주어로 사용된 수동문은 12개, 63개의 보통명사(구)가 수동문의 주어로 사용되었다.

3종의 교과서 본문의 수동문의 주어로 인칭대명사가 현저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인칭대명사주어를 인칭별로 분류해보니 Book 1에서는 1인칭 주어가 10회, 2인칭이 4회, 3인칭이 9회로 나타났다. Book 2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가 각각 4회, 4회, 7회 사용되었다. Book 3에서는 1인칭 주어가 7문장, 2인칭 주어가 1문장, 3인칭 주어가 17문장 나타났다. 수동문에는 2인칭 주어가 1인칭과 3인칭 주어에 비해 적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2.2.2 주어의 속성-유생성

주어의 유생성 유무에 따라 각 교과서 내의 수동태 문장을 분류 해 보니 먼저 주어가 유생성이 있는 수동태 문장은 Book 1에서 30개, Book 2에서 21개, Book 3에서 3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어가 유생성이 없는 수동태 문장은 Book 1은 46개, Book 2는 34개, Book 3는 72개로 나타났다. 교과서 3종의 주어의 유생성에 따른 분석 결과 공통점이 있었는데 교과서 3종 모두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유생성이 없는(inanimate) 명사가 유생성이 있는(animate) 명사보다 주어로 사용된 문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9> 교과서 수동문의 유생성 분류

주어의 속성	Book 1	Book 2	Book 3	합계
[+ animated]	30개	21개	33개	84개
	39%	38%	31%	36%
[-animated]	46개	34개	72개	152개
	61%	62%	69%	64%

유생성 유무에 따른 주어의 특징을 찾아보기 위해 3종의 교과서에서 뽑아낸 수동태 문장들을 모두 합하여 각각 주어가 유생성이 있는 문장들과 주어가 유생성이 없는 문장들로 분류하였다.

주어가 animated인 수동태 문장은 84개, 주어가 inanimated인 수동태 문장은 152개였다.

(30) a. Students get kicked out of college for it, you know.

b. As a result, Madison Marsh was elected by one vote.

(31) a. Near the pictures were displayed musical instruments,
books, and other items.

b. In Korea, noodles were considered a very noble dish
because wheat was very rare at that time.

주어가 [+ animated] 일때 사용된 수동문의 주어로는 주로 인칭대명사 또는 부정대명사였다. 84개의 유생 주어 중 인칭 또는 부정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수동문은 50개로 대략 60% 비율이다. 반면에 무생 주어 수동문은 30개로 20% 정도이다.

(32) a. Actually, they were mad for a day or two, but I'm not grounded.

b. After I became a professor, I was involved with a virtual reality program at my university.

c. Nobody from the opposition is allowed to touch a person who is shooting free throws.

그리고 또한 유생성과 관련해 수동문의 형태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유생성이 있는 주어의 수동문의 형태는 기본 구조인 [be동사+ 과거분사]와 [조동사+ be동사+ 과거분사]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장이 전부였었지만 수동문의 주어가 유생성이 없는 명사일 경우에는 수동문장이 완료나 진행상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4.2.3 문법적 상에 따른 분류

각 교과서 본문 내에는 영어의 상(aspect)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 유형이 나타났다.

수동문의 기본구조인 [be동사 + 과거분사]로 표현되는 수동태가 가장 많았으며, 주격 관계대명사절에서 주격관계대명사와 be동사 생략되어 과거분사만 남은 형태와 조동사+be동사+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 문장이 많이 나타났다.

- (33) a. she **was diagnosed** with bone cancer in her right leg.
b. And journalists actually **get prosecuted** for that.
c. It **can be eaten** as a simple meal or as a snack on family picnics.
d. **Encouraged** by her friends and coaches, however, she spent a lot of time practicing her free throw shooting.
e. Since then, the title of chief **has been passed** down only to the oldest son in each generation.
f. At another part of the festival, mosi **was being dyed** various colors.
g. Trying” said Cosmos in a voice nearly too quiet **to be heard**.
h. If the wind had not changed, our departure **could have**

been delayed further.

<표10> 교과서 수동태의 유형

수동태 유형	Book 1	Book 2	Book 3	합계
be + p.p	48	36	75	159
get + p.p	6	1	2	9
조동사 + be + p.p	9	6	12	27
only p.p	10	7	12	29
have/has/had been + p.p	2	3	10	15
be + being + p.p	2	1	1	4
to be + p.p	3	1	1	5
조동사 + have been + p.p	0	0	1	1

4.2.4 수동문의 동사

교과서 본문 속의 수동태 문장들의 동사의 유형이나 자주 쓰이는 동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빈도가 높은 동사들을 찾아서 그 특징을 찾아보았다.

3종의 교과서에 사용된 동사의 수는 200여개 이었고, 각 교과서별 사용 빈도수가 높은 동사를 찾아보았다.

Book 1에서는 동사 use가 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동사 allow 5회, make 4회, call 3회, create 3회, diagnose 2회 사용되었다.

Book 2에서는 동사 prepare이 5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사 hold와 see가 4회씩 사용되었고, 동사 know와 make가 3회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다.

Book 3에서는 동사 consider이 5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connect 4회, know 4회, bear 3회, train 3회로 많이 사용되었다.

3종의 교과서를 통합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는 make로 총 10회 수동문에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동사는 know와 use로 8회 사용되었다. 동사 call과 create는 각각 6회씩 사용되어 세 번째로 수동문에 많이 사용되었고, 동사 connect 5회, 동사 bear와 see는 각각 4회씩, 그리고 동사 believe와 interest는 3회씩 사용되었다.

- (34) a. It's made of dried seaweed, rice, eggs, ham, pickled radish, and various other vegetables and meats.
b. Irving is well known today for his short stories like 'Rip Van Winkle' and 'The Legend of Sleepy Hollow.'
c. In the past, mosi was used for summer clothing because it is cool, dry, and soft.

4.2.5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거리

코퍼스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 사이의 거리는 주어

와 [be동사+ 과거분사]사이에 위치하는 수식어구의 단어의 개수로 결정되었다. 교과서 본문의 수동문에서도 [be동사+ 과거분사]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수동태의 주어와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 (35) a. All of the things I loved were rooted in the dreams and goals I had as a child.
b. Venice Carnival, which is the cultural icon of this City of Water, was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in an official document as early as in the 10th century.

둘째,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 사이에 접속사가 삽입된 경우

- (36) Advertising, on the other hand, was not originally created as an independent art genre.

교과서 분석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의 형식은 Book 3에서 유일하게 한번 사용되었다.

셋째, 병렬 구조로 인하여 등위접속사 다음에 [be동사+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 (37) a. When someone performs very well or is thought to be the best, we give thumbs up to him or her.

- b. the black hole will disappear and all the materials it has swallowed will be released.
- c. We turn our wheels until we burn ourselves out and are left hopeless and exhausted.

넷째, 주어의 부가 설명해주는 구 또는 동격구의 삽입으로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 (38) a. Many events such as street shows, organized performances, and masked balls are held throughout the city while people in masks can be seen everywhere in the streets and squares.
- b. In 1675, her first sketchbook, full of detailed illustrations of vividly colored flowers with a variety of insects, was published under the title New Book of Flowers.

4.2.6. 수동문의 유형

Biber et al. (1999)는 행위자 유무에 대해 수동문의 상대적 길이에 따라 행위자가 있는 수동은 긴 수동문(long passive), 행위자가 없는 수동은 짧은 수동문(short passive)라고 제시하고 있다.

Biber (1999)의 분류에 의한 교과서 본문 내의 긴 수동문과 짧은 수동문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각 교과서에 나타난 수동태 문장은 by+ 행위자가 대부분 생략된 짧은 수동문이였다. by+ 행위자가 표시된 긴 수동문은 Book 1에서 7개, Book 2에서 7개, Book 3에서 20개였다.

- (39) a. As a result, Madison Marsh was elected by one vote.
 b. Human call center representatives will disappear because they will be replaced by automated systems.
 c. Koro is blinded by prejudice and no one can convince him that Pai is the natural leader.

<표11>

Biber의 수동문 분류

	Book 1	Book 2	Book 3	합계
수동태 문장 수	80	55	114	249
long passive	7	7	20	34
	9%	12%	18%	14%
short passive	73	48	94	215
	91%	88%	82%	86%

행위자가 드러난 긴 수동문은 유생성의 위계와 설명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Yamamoto(1999)는 유생성의 위계를 '사람 > 동물 > 식물 > 무생물 > 추상명사'의 순으로 설명하였다.

- (40) a. As a result, Madison Marsh was elected by one vote.

- b. Soon they would be completely surrounded by darkness.
- c. you have been fooled by a writer named Washington Irving.
- d. many of our jobs will be replaced by new ones.
- e. One day I was amused by watching the habits of the blowfish.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40a)는 사람>무생물, (40b) 사람>추상명사, (40c)는 사람=사람 (40d)는 무생물=무생물, (40e) 사람>무생물로 피동작주의 위계가 행위자보다 높거나 피동작주와 행위자의 위계가 동등하다.

수동문의 형태로만 사용되는 표현도 교과서 본문 속에 나타났다.

(41) a. Are you grounded?

Actually, they were mad for a day or two, but I'm not grounded.

b. Since I was born in the States and have never been to Korea, I felt distant from my Korean heritage.

Maria Sibylla Merian was born in Frankfurt on April 2, 1647.

그리고 교과서 본문에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의 수동문이 상당히 존재했다.

(42) a. She was satisfied just being with her friends again.

b. All through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was laughing

- and impressed by the amazing martial arts moves.
- c. Personally, I was amazed at the way the actors moved so effortlessly, performing all kinds of movements in the air and doing high kicks throughout the show.
 - d. When I put it on, I was surprised at how light and cool it felt.
 - e. After my grandmother passed away, my parents were worried about him
 - f. She was very excited to be able to study such a variety of valuable insects.
 - g. One day I was amused by watching the habits of the blowfish.
 - h. And his aunt living in New York was hugely disappointed when a fake handbag arrived from an online shop!
 - i. She was afraid of the expense.

4.3 교과서와 코퍼스의 비교 분석

연구내용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통합한 통합 결과와 코퍼스를 각 분석기준을 토대로 비교 해 보았다.

전체에 대한 수동문의 비율에 대해 보면 사설이 17%, 소설 8%, 저널 13%로 나타났고, 교과서에는 13%의 수동문이 사용되었다. 교과서는 사설

보다는 수동문이 덜 사용되었지만 소설에 비해서는 수동문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 교과서를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널의 유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동문의 주어에 대하여 코퍼스와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세 종류의 코퍼스나 교과서 모두 주어가 한 단어 또는 두 단어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 코퍼스와 교과서 모두 영어의 문미 중점 규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긴 주어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차이점은 교과서의 수동문은 과거분사만 나타나는 분사구문 형태로도 사용되었는데, 코퍼스에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어로 사용된 명사구의 형태도 코퍼스나 교과서 본문에서나 같은 형태로 나타났으며 인칭과 관련해서는 수동문의 주어로는 2인칭에 비해 1인칭과 3인칭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설과 저널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2인칭 주어가 교과서의 수동문에서는 종종 사용되었다. 주어의 유생성과 관련해 코퍼스와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사설, 소설, 저널, 교과서 모두 유생성이 없는(inanimated) 명사가 수동문의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분류 기준인 문법적 상에 관하여 수동문의 구조를 비교해 보니 사설, 소설, 저널, 교과서 모두 수동태의 기본 형식은 [be동사+ 과거분사]의 수동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조동사+be동사+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문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네 번째 분류기준으로서 수동문에 사용된 동사에 대한 비교를 해 보았다. 사설에 나타나는 동사는 100개, 소설에는 40개, 저널에는 75개, 교과서에는 210개 동사가 나타났다. 세 종류의 코퍼스를 통합한 동사의 개수

는 215개이며, 통합 코퍼스에는 동사 use가 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take 4회, release 3회, do 3회, suppose가 2회 사용되었다. 교과서의 수동문에 사용된 동사는 3종의 교과서를 통합해서 동사 make가 총 10회로 가장 많이 수동문에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동사는 know와 use로 8회 사용되었다. 동사 call과 create는 각각 6회씩 사용되어 세 번째로 수동문에 많이 사용되었다. use는 통합코퍼스와 교과서 두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동문에서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의 거리는 주어가 어떤 유형의 수식을 받는냐와 관련이 있는데, 주어가 받는 수식의 유형은 코퍼스와 교과서 모두에게 같게 나타났지만, 그 빈도수에 차이가 있었다. 코퍼스에서는 동격 구의 삽입과 주어가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일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교과서에는 주어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일 경우와 등위접속사의 병렬 구조로 인해 주어와 be동사+ 과거분사의 거리가 떨어진 형태가 많았다.

4.4 토론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기준으로 코퍼스와 교과서의 수동문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다. 코퍼스와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앞 절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동문이 차지하는 그 비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동문은 전체문장 중에 등장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대

략 10% 내외로 수동문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이 결코 수동태 학습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동문을 올바르게 습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말하기와 쓰기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전환하는 기계적인 학습 보다는 수동문이 어떤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수동문의 주어와 동사는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를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학습하도록 지도해서 학습자들이 수동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동문의 선택은 주어의 유생성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 이러한 개념을 학습자들에게 숙지시켜 학습자들이 좀 더 다양한 주어를 가지고 수동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동문은 be+ 과거분사 외에 완료(perfect)상이나 진행(progressive)상과 결합되고 여러 조동사(modal verb)과도 결합한 형태로 교과서와 여러 텍스트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행위자가 있는 수동문 보다는 행위자가 없는 수동문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습자들은 정형화된 틀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그 내용이 어려워하거나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동문은 여러 조동사와 결합하기도 하고 진행상과 완료상과도 결합해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되며 그리고 행위자가 없는 수동문도 많이 사용되니 짧은 수동문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제안한다.

수동문을 단순히 주어+ be동사+ 과거분사의 구조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 부가설명해주는 구나 동격설명, 관계절에도도 수동문을 이용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동문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동문 학습에 필요하다.

한국어에도 영어와 같이 수동표현이 있는데 한국어는 피동과 사동으로 수동의 개념을 표현한다.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정 문법 교과서에는 피동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동의 개념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며,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主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근본적으로 능동문과 피동문이 의미가 같아야 하며 주어가 동작을 체험으로 하느냐 다른 주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동작을 당하느냐를 의미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나뉘는 것이다.

한국어의 수동문 사용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선정해 전체 문장 중 수동문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이 수필은 총 1660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수동형의 문장은 43개로 수동문이 약 3% 사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영어의 수동문 대략적인 사용비율 10%에 비교하면 한국어에는 수동형 문장이 아주 적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무소유에 나타난 수동문의 비율

	무소유
수동태 문장 수(개)	43
총 문장수(개)	1660
비율(%)	3%

한국어 코퍼스의 수동문을 유생성 유무에 따라 구분해보니 유생 주어는 문장은 11개, 무생 주어 문장은 32개로 나타났다. 작은 양의 데이터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한국어 수동문에는 유생성이 없는 주어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유생성에 따른 무소유의 수동문 분류

주어 속성	
[+ animated]	11 개
[- animated]	32 개

한국어에도 수동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비율이 영어의 수동문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영어의 수동태를 어려워하며 기계적인 수동-능동 전환의 기계적 학습으로 인해 수동태에 대한 기능, 형태, 의미적 지식의 부족으로 특정한 지식만을 가지고 수동문을 사용하다 보니 과 수동화를 범하며 수동문 사용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태의 문법적인 측면이 아닌 여러 종류의 텍스트에서 수동문의 형식과 수동문에 사용된 주어의 구조나 특징, 사용된 동사의 빈도수 등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수동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에서 인용된 수동태 문장들을 예문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수동문에 좀 더 익숙해져서 한 단계 높은 수동문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수동태문장을 정확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의 수동태 문장을 분석하였다. 한국어에도 피동과 사동으로 분류되는 수동표현이 있다. 그러나 그 형태가 다르고 한국어의 수동문은 영어의 수동태와는 의미상 유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학습자들은 수동문과 능동문이 동사적 변화라고 여기고 있어 수동문을 사용해야하는 문맥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수동문 사용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 분석을 통한 특징을 제시한 것은 수동태에 대한 문법 수업과 내용 암기로의 학습이 끝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수동문의 특징을 인지하고 다양한 문맥 속에서의 수동문에 노출됨으로써 수동태 문장 활용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사용 하도록 하고, 한 차원 높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코퍼스의 수동문의 비율은 사설이 17%, 소설 8%, 저널 13%로 나타났고, 교과서 코퍼스에는 13%의 수동문이 사용되었다. 교과서는 저널에 사용된 수동문과 같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저널과 교과서 본문의 내용이 난이도 측면에서 유사해서 같은 비율의 수동문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동문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주어의 길이와 주어의 유생성으로 분류했는데, 주어의 길이는 수동문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으며 수동문의 주어를 주어의 유생성 유무에 따라 분류 했을 때 주어가 유생성이 없을

때 유생성이 있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수동문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교과서에는 수동문의 기본 형식인 'be동사 + 과거분사'의 구조에 시제와 상이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수동문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be동사 + 과거분사' 구조의 수동태 문장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른 구조의 수동문이 빈번히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다소 아쉽다.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행위자가 생략된 수동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80~90%의 수동문이 행위자가 생략된 짧은 수동문이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 수동문에 빈번히 사용되는 동사는 make, know, use 등이 있다. 그리고 수동문의 주어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등위 접속, 접속사의 삽입, 동격구 또는 절의 삽입으로 인하여 수동문의 주어와 'be+ 과거분사'가 떨어져있기도 했다.

유양위(2007)의 연구 결과를 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수동태 문장이 급증하고, 더 다양한 수동태 문장 형태도 보인다 고 한다. 그리고 Spada & Lightbown(1993)는 상호 의사소통 상에서 언어적 형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교사가 비문맥화된 수업을 하는 교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실 수업에 있어서 교사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의 수동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진정한 글 속에서 문맥의 이해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수동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유창성에 부합하는 영어 교육이 될 것이다.

형식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교과서에서마다 수동태 형식에만 치중하여 수동태를 설명할 뿐 수동태가 가지는 의미와 수동태가 언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실제로 의사소통에 학습자들이 수동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동태의 의미와 수동태를 언제 사용해

야 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문법을 가르칠 때 의미가 기초가 되고 의사소통 접근법에 바탕을 둔 형태에 집중하는 교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실에서는 한편의 교과서만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학습자들이 수동태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소설, 저널, 사설등과 같은 원어민이 사용하는 실제적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학습을 한다면 보다 훌륭한 언어학습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곽혜선. (2006)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수동태 사용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한양대 교육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요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권오량 외 5인. (2010)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서울: 금성출판사
- 김가원. (2007) *영어 수동태 허용동사와 제한동사에 대한 오류분석*.
석사 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규현 외 6인. (2010)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서울: 두산동아
- 김원영. (2004) *현행 고교 영어1 교과서의 수동태*. 석사 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원석. (2004) *영어 수동문과 국어 피동문 비교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향숙. (2002) *영어 동사의 속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문용. (2010) *고급 영문법 해설 (제3개정판)* 서울:박영사
- 박지영. (2009)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수동태 습득 양상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법정 스님. (2010) *무소유* 서울: 범우사
- 유양위. (2007) *7차 중학교 교과서 영어 수동태에 관한 분석*. 석사 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철. (2002) *영어 수동태에 관한연구:현행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찬승 외 7인. (2010)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서울: 능률교육
- 제재륜. (2009) *수동문과 교과서 분석을 통한 학습 지도*. 석사 학위 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조성식. (1971) *고등 영문법*. 서울:고려대학교출판부
- 최유진. (2007) *제 2언어 학습자의 과수동화 경향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진이. (2001)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유생성 연구*. 석사 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현윤정. (2001) *영어 수동태 연구 및 활용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현한나. (2008)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수동태 습득 양상 연구 :
의미, 형태, 활용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
- 홍서영. (2002) *영어 수동태에 관한 연구 :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
으로*. 석사 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수진. (2009)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문법
제시 방법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Biber, D., Conrad, S., Leech, G. (2002). *Longman student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Edward, F.,
and Randolph, Q.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New York: Longman.
- Bock, J. (1982) *Toward a Cognitive Psychology of Syntax :
Information Processing Contribution to Sentence*

- Formulation.* Psychological Review 89, 1-47.
- Celce-Murcia, M. and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2nd ed.). USA: Heinle and Heinle.
- Clark, H. (1965) *Some structural properties of simple active and passive sentence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4, 365-70
- Clark, H. and Begun, S. (1971) *The semantics fo sentence subjects.* Language and Speech, 14, 34-46
- Cowan R. (2008)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me, O. (1931) *Syntax. A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Vol. 3.* Boston: D. C. Heath & Company.
- Davidson, D. (1971) Agency, In R. Binkley, R. Bronaugh and A. Marras (eds.), *Agent, Action, and Reason.* Oxford: Basic Blackwell.
- Dewart, H. (1975) *A psychological investigation of sentence comprehension by children.* Unpublished Ph. 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 Dickens, C. *A Christmas Carol:* www.gutenberg.org
- Eli, H. (2002) *Why English Passive Is Difficult To Teach (and Learn).* In E. Hinkel & S. Fotos (Eds.), *New perspectives on grammar teaching (pp. 233-26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llis, R. (1990) *Instruct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earning in*

- he classroom.* Oxford, OX: B. Blackwell.
- Ferreira, F. (1994) *Choice of Passive Voice is Affected by Verb Type and Animacy.*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715-736
- Gennari, P., Mirkovic, J. and MacDonald, C. (2005) *The Role of Animacy in Relative Clause Production.* Paper presented at the 17th Annual CUNY Conference on Human Sentence Processing, College Park, Maryland.
- Grimms. *Rapunzel* : www.tomatopang.net
- Han Ho. (2008) *Acquisition of Passives and Transitivity Hierarchy.*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6, 157-172.
- Henrietta L. (1989) *Animacy constraints on acquisition of the passive: Evidence from comprehension after production training with animate vs. inanimate patients.*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eeting, Kansas City, MO., April, 1989.
- Hwang, Jong-Bai. (1999). *A Cognitive Model of the L2 Acquisition of English passive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6, 87-110.
- Jarvella, J. and Sinnott, J. (1972) *Contextual constraints on noun distributions to some English verbs by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 47-53
- Montag, J and MacDonald, M. (2009) *Word Order Doesn't Matter: Relative Clause Production in English and Japanese*
- Lee, Kwee-Ock and Lee, Youngjoo. (2007) *The Role of Lexical*

- Aspect in the Acquisition of the Korean Passive - With reference to the Difference between Monolinguals and Bilinguals* .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2-4, 691-712
- Lightbown, P. and Spada, N. (1993) *How Languages are Lear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k M., Vonk, W., and Schriefers, H. (2002) *The influence of animacy on relative clause processing*. Journal of Memory & Language, 47, 50-68
- Margaret H. (1978) *Noun Animacy And The Passive Voice: A Developmental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1978), 30, 495-504
- New York Times: www.nytimes.com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Semina Press.
- Readers Digest Asia: www.rdasia.com
- Wills, D. (1994) *A Lexical Approach*. In M. Bygate, A. Tonkyn, and E. Williams (eds.),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 London: Prentice Hallm 55-66
-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